

가인이라는 신앙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
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창4:1)

하늘에 두 천국, 곧 천적(天的, *the celestial*) 천국, 영적(靈的, *the spiritual*) 천국이 있듯 지상에는 두 신앙, 곧 아벨 신앙, 가인 신앙이 있습니다.

아벨 신앙, 가인 신앙을 아주 짧게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아벨 신앙은 교리가 달라도 사랑부터, 신앙이 달라도, 종교가 달라도, 인종과 종족, 사상과 이념이 달라도 사랑부터 하는 신앙인 반면, 가인 신앙은 아벨 신앙과 모든 면에서 정반대입니다. 즉 교리가 다르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신앙이 다르거나 종교가 다르거나 기타 인종, 종족, 사상, 이념 등이 다르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신앙, 이런 신앙을 가인이라 하며, 가인의 신앙, 가인이라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좀 극단적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오늘날 소위 기독교인이라 하는 사람들, 거기서 더 나아가 개신교인이라 하는 사람들 옆에 아홉은 거진다 후자, 곧 가인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지 싶습니다. 경험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말이지요.

내가 아벨 신앙인지, 아니면 가인 신앙인지를 아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나와 다른 교리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를 관찰하면 됩니다. 안색이 변하는가 아니면 그래도 일단 사랑하는가를 말이지요.

이 '교리가 달라도 일단 사랑부터'라는 슬로건(?)은 말은 그럴듯해도 사실 실제로는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실제 직접 해보시면 압니다. 제 경우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니다. 머리로 알겠는데 가슴이 따라오질 않더군요... 저는 제가 무엇이든 그저 맘만 먹으면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적어도 이걸 아니었습니다. 이 '교리가 달라도 일단 사랑부터'는 맘을 먹는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그럼 전혀 불가능한 거냐? 그렇지는 또 않다는 겁니다. 아주 드물지만, 아주아주 희귀하지

창4:1, AC.338-340

‘가인이라는 신앙’

만 가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때
문입니다.

가령, 11세기 사람인 성 프란치스코
같은 사람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책
한 권 이야기를 해야 하지만... 몇
줄로 말씀드리면, 그는 당대 모든
종교, 인종, 신분, 계급을 망라하고,
동식물들, 심지어 사나운 짐승들까
지도 그를 친구하고 가까이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그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라
고까지 할까요? 프란치스코에 관해
서는 워낙 접할 수 있는 자료가 많
으니까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프란치스코라는 이름 앞에 ‘성’
(聖)자를 붙인다고 개신교에서는 질
색들을 합니다만 그냥 뭔가 우리와
다르게 좀 더 특별하게 주님을 사랑
했던 사람에게 뭔가 좀 더 예의와
경애를 표현하기 위한 것 정도로 가
볍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프란치스코 본인은 후손들이 자기
이름 앞에 감히 ‘성’자를 붙여 부르
고 있다는 걸 알면 하늘에서 난리를
치겠지만 말입니다 ^^

프란치스코 외에도 사실 손꼽을 수
없게 많기는 합니다. 성 분도 요셉
라브르 등 수 많은 성인들이라든지,
아토스 성산 수도사들이라든지, 맨

발의 성자 이현필 선생 등, 우리나
라 근현대사 개화기를 비롯, 일제
강점기와 전쟁 및 혼란, 혼돈의 세
월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름
도 없이, 빛도 없이 온몸을 불사르
며 주님 사랑을 실천하시다가 사랑
했던 사람들 말고는 무슨 각종 업적
이나 화려한 기록 같은 거 없이 조
용히 주님 곁으로 가신 수 많은 분
들이라든지...

이런 게 아벨 신앙입니다. 체어리티
신앙이지요. 체어리티란 주님 사랑
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입니다.
즉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자기가 주
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속한 사람임
을 나타내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정말 사랑하면 그 사
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합니
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참으
로 사랑하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되며, 그걸 하면서 아주
즐거워합니다. 물론 대부분은 즐거
움보다는 눈을 꼭 감고 입을 꼭 다
문 채 사랑 실천할 때가 더 많겠지
만 말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
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요 ^^

다음은 이와 관련된 주님 말씀입니
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14:21)

다른 무슨 큰일 행하는 건 많은 지식과 배운 게 있어야 가능하다면 주님 계명 실천하는 거, 곧 사랑하는 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마음만 먹고 첫발을 떼면 됩니다.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첫발을 떼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곧 사랑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여 주십니다. 사람이 필요하면 동역자를, 재정이 필요하면 후원자를, 건물이 필요하고, 사무실이 필요하고... 하여튼 순서가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주님을 사랑함입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순서대로 옵니다. 이 순서가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뭐가 갖춰지면 주님을 사랑하겠다, 뭐가 준비가 되면 주님을 사랑하겠다...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순서... 주님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

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6:24)

그리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 6:33)

를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신앙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순서가 잘 지켜지면 행동을 맛보게 되지만 잘 안 지켜지면 뭐를 해도 잘 안 되고, 잡았던 재물도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갑니다. 잠언에 이와 관련된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벨들입니다. 아벨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지요. 아벨의 제사는 주님이 열납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이런 사람들의 삶은 주님께 열납될 수 있습니다. 부디 아벨의 사람들이 되어 주님께 열납되는 삶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가인의 신앙은 모든 면에서 아벨과 정반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벨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영

창4:1, AC.338-340

‘가인이라는 신앙’

적 통찰력, 곧 주님 신성에 관한, 주님의 선과 진리에 관한 모든 걸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습니다. 마치 각종 짐승들, 아주 작은 곤충에 이르기까지 생존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태어나면서부터 그 본능에 다 갖고 태어나듯 말이지요. 아벨의 사람들은 사랑을 태생적으로 압니다. 그냥 사랑부터 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말이지요 ^^

그러나 가인의 사람들은 사랑을 배워서 합니다. 아벨의 사람들은 신앙을 사랑으로 하는 반면, 가인의 사람들은 사랑을 신앙으로 합니다. 신앙의 교리를 통해서 사랑을 학습한 다음, 그 배운 걸로 사랑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뭔가 이상하고, 뭔가 잘 안 맞습니다. 오래가지도 못하고, 하여튼 뭔가 좀 잘 안 맞습니다. 마치 몸에 잘 안 맞는 옷을 입고 다니는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해서는 별 관심도 없으면서 웬지 신학이라든가 영적인 것에 관해서는, 철학적인 것에 관해서는 또 관심이 있어서 신학 서적이거나 영성 서적, 심지어 신학교까지 가고 하지만... 하여튼 뭔가 이상합니다. 늘 겉도는 것 같고 말이지요. 신학도, 뭣도 일단은 그 시작과 동기가 사랑, 곧 주님을 사랑함

이어야 하는데 그 출발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나마 더 나아가기 전에 계속 고민하는 건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런 고민 없이 쭉쭉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갔다간 그땐 돌이킬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돌이킬 수 없는 사람**’이란 심령이 돌처럼 굳어져 버린 사람을 뜻합니다. 목회자라고 하면서 목회나 기도원, 수도원을 단지 자신의 생업의 수단으로 하는 사람, 혹은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단지 주님을 이용하고, 조국과 애국을 이용하는 사람, 뭔가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흔들지만 그 속 가장 중심에는 자아 사랑과 자기를 높임이 마치 뱀처럼 꼬리를 들고 있는, 그러면서 정작 본인조차 이런 영적 실상을 모르고 있는 이런 참 딱한 상태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인의 사람인지, 가인의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를 아는 아주 간단한 검사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생각과 말 속에, 무슨 행위를 하는 동기 속에 이노센스가 있는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순진무구, 천진나만이라고 하는 이 이노센스는 천국의 두 키워드 중 하나로 다른 하나인 피스, 평화와 함께 주님으로부터

직접 나오는 것입니다. 이노센스는 이런 것입니다.

'...이노센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선한 것도 제게서 나온 것으로 여기지 않고, 모든 것을 받은 것으로 여기고, 그 근원을 주께 돌린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주의 인도를 받기 원한다...

...그들이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받는 모든 것의 근원을 주께 돌리기 때문에 자기 본성으로부터 떨어져 있다. 그들이 자기 본성에서 떨어져 있는 정도만큼 주께서 그들에게 들어가신다...

...이노센스란, 어떤 선함도 그 근원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모두 주께 돌리는 것이다. 따라서 주의 인도를 받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것은 지혜를 이루는 모든 선과 진리를 받는 근본이 된다...'

※ '천국과 지옥'(스베덴보리 저, 김은경 역) 278번 글에서 인용

만일 자신의 생각과 말, 행위의 동기가 이렇지 못하다면 자신은 아벨이 아닌 가인의 사람이구나 생각해

도 거의 무방하지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절대 교리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참 괜찮고, 무슨 간사함이나 잔머리 굴림, 무슨 좌파스러움이 없는, 무슨 악과 거짓과는 한참 멀어 보이는 분이신데도 교리 앞에만 서면 돌연 돌처럼 경직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리 영역에서 약간이라도 부드러워지는 순간 자기는 무슨 변절자라도 되시는 양, 이 문제라면 당장 이 자리에서 순교라도 불사하실 양 아주 결연해지는 분들이시지요. 마치 다른 고양이 고양이한 걸로는 하하호호 하다가도 정치 문제가 나오면 순간 좌우가 갈리고, 영호남이 갈려 주님이고 뭐고, 신앙이고 뭐고 없는 그런 일반 교회 교인들처럼 말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교리는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교리 일변도의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교리 이전에 사랑을 우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으실 수 없었지만 아벨의 제사는 받으실 수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리는 그릇일 뿐, 가장 중요한 것, 정작 중요한 건 그 그릇에 담기는 음식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인이라는 신앙’

전 세계 인구 중 기독교인은, 그리고 그중에서 개신교인은 정말 얼마 안 된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우리 기독교인만,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 개신교인만 구원의 대상이겠습니까? 열 손가락 중 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시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사랑이시며, 사랑의 신이십니다. 전 세계 인류를 모두 아우르는 유일한 기준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인종과 종족, 종교와 신앙, 이념과 사상을 모두 초월합니다. 사랑의 상징인 십자가와 말씀을 가진 우리가 정작 사랑은 놓치고 대신 교리만 붙잡는 사람들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교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은 아니지요. 단지 우리의 교리는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교리가 충돌하면 일단 사랑부터 하자는 것입니다. 안색이 싸늘해지고, 더 이상 상종을 안 하며 안 보고 살지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러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 나는 주님을 영접했으니 구원받았노라 해서야 되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천국은 상태의

나라이며, 그래서 무슨 허락을 받고 들어가는 그런 데가 아니라 ‘살 수 있으면 살아봐, 지낼 수 있으면 지내봐’ 하는 나라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은 사랑과 신앙이 결합된 상태, 선과 진리가 하나 된 상태여야 지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창세기 4장입니다. 4장 전체를 한번 쭉욱 읽고 그 간략한 리뷰를 살핀 후, 오늘 본문을 살짝 풀이하고 마치겠습니다.

4장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¹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²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³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⁴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⁵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⁶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

함은 어찌 됴이나 ⁷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듣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엮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⁸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죽이니라 ⁹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¹⁰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피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¹¹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¹²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¹³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¹⁴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낫을 뵈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¹⁵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 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

을 면하게 하시니라 ¹⁶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낫 땅에 거주하더니 ¹⁷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¹⁸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므후야엘을 낳고 므후야엘은 므드사엘을 낳고 므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¹⁹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쉘라였더라 ²⁰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²¹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²²쉘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²³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쉘라여 내 목소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²⁴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칠 배일진대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칠십칠 배이리로다 하였더라 ²⁵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인

창4:1, AC.338-340

‘가인이라는 신앙’

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²⁶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의 이름을 불렀더라

4장 전체적으로는, 교회로부터 분리된 교리들 또는 이단들을 여기서 다루며, ‘에노스’라고 하는, 나중에 일어난 새 교회도 다룹니다.

절별 개요입니다.

태고교회는 사랑으로 주님을 신앙하는 교회였으나 사랑에서 신앙을 분리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랑에서 분리된 신앙의 교리를 ‘가인’이라 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인 체어리티(*charity*, 자선, 기부, 이웃사랑)를 ‘아벨’이라 하였습니다. (1-2절)

각각의 예배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랑에서 분리된 신앙으로 드리는 예배를 ‘가인의 제사’라 하고, 체어리티로 드리는 예배를 ‘아벨의 제사’라 합니다. (3-4절)

체어리티로 드리는 예배는 열납(悅納, *acceptable*)될 수 있었으나 분리된 신앙으로 드리는 예배는 열납될 수 없었습니다. (4-5절)

분리된 신앙에 속한 사람들은 악한 상태가 되었는데, 이걸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로 묘사하신 것입니다. (5-6절)

그리고 신앙의 질(質, *quality*)은 체어리티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신앙이 주(主)가 되려 하거나 체어리티보다 높아지려고만 하지 않으면 이 체어리티는 신앙과 함께하고 싶어 한다는 것 (7절)

신앙을 분리, 신앙을 체어리티보다 우선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체어리티가 사라지게 되는데, 이것을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죽이니라’로 표현하였습니다. (8-9절)

‘뿔소리’(10절)는 사라진 체어리티를, ‘땅에서 저주를’(11절)은 왜곡된 교리를,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12절)는 거기서 나오는 악과 거짓을 각각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원하여 주님을 외면했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이라는 위험에 빠졌습니다. (13-14절)

그러나 체어리티가 이식되는 것은 신앙을 통해서였기 때문에, 신앙은 불가침의 것이 되었습니다. ‘가인에

계 표를 주사'는 이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5절)

그리고 '에덴 동쪽을 향하여 거주
하는 가인'은 그것의 이전 지위에서
쫓겨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16절)

이 이단의 엄청난 확장을 '에녹'이라
합니다. (17절)

이 에녹으로부터 샘처럼 솟아난 이
단들 역시 저마다 자기들의 이름들
이 있고, 그 끝에 있는 라멕, 이 라
멕이라는 이단은 남아있는 신앙이
전혀 없었습니다. (18절)

그 후 새로운 교회가 일어났는데,
이것이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
나의 이름은 쉘라였더라'의 의미입
니다. 그들의 아들들인 '야발', '유
발', '두발가인'으로 이 교회를 설명
하고 있으며, '야발'로는 이 교회의
천적인 것들을, '유발'로는 영적인
것들을, 그리고 '두발가인'으로는 자
연적인 것들을 각각 설명하고 있습
니다. (19-22절)

신앙과 체어리티의 모든 것이 끝났
을 때 일어난 이 교회, 그리고 이
교회에 행해졌던 폭행, 가장 지독한
수준의 신성모독(*sacrilegious*)이 있
었던 그런 교회 이야기입니다. (23-

24절)

요약입니다. '가인'으로 상징되는 신
앙 이후 체어리티가 사라졌지만, 주
님 주신 새 신앙이 일어났고, 이 신
앙으로 체어리티가 이식되었습니다.
이 신앙을 '셋'이라 합니다. (25절)

신앙에 의해 이식된 체어리티를 '에
노스', 다른 말로는 '사람'(*man, ho
mo*)이라 하는데, 이것이 그 교회의
이름입니다. (26절)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
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
니라 (창4:1) 는 말씀의 속뜻은 다
음과 같습니다.

가인이라는 신앙은 태고교회가 낳은
첫 자식입니다. 이 가인이라는 사람
들로 인해 신앙이라는 게 독립된 어
떤 걸로 인식되고 인정되었습니다.

이 가인이라는 신앙의 사람들로 인
해 이후 태고교회 역사가 어떻게 흐
르며, 결국 그 종말이 어찌 되는지
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태고
교회 뿐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가

창4:1, AC.338-340

‘가인이라는 신앙’

이 가인과 아벨, 아벨 신앙과 가인 신앙의 역사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부디 아벨의 편에 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름다운 천국, 영광의 하늘나라, 특히 천적 나라에 들어가 주님을 지근(至近,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섬기는 천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2022-06-19(D1)

한결같은교회 변일국 목사